



지난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험을 보고 있다.

수능 모평 어려웠다 〈9월〉 올해 불수능 예상

6월보단 쉬워졌지만 최고점 높아져 영어, 상대평가 수준… 전환 무의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9월 수능 모의평가 주요 과목이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모평에 이어 9월 모평도 어렵게 출제되면서 올해 수능이 지난해 불수능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평가원이 밝힌 9월 모평 채점 결과를 보면,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39점, 수학가형 135점, 수학나형 142점으로 지난해 수능 이후 어려운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의 상대적인 난이도가 높아질 수록 표준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 낮아진다.

국어 영역의 경우 작년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 6월은 144점으로 이번 9월(139점)까지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있으나 쉬운 난이도가 아니라는 것이 입시업계 설명이다.

수학가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의 경 우 지난해 수능 133점, 6월 140점으로, 9월(135점)이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다. 수학나형 역시 어려운 기조가 유지됐다.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의 경우 9월 모평 1등급자 비율은 5.9%로 전년

수능(5.3%), 올해 6월(7.8%)로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영어는 상대평가가 수준의 난이도와 비슷해 절대평가로 전환한 의미가 없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게 됐다.

모든 수험생이 치러야하는 절대평가 한국사 역시 9월 모평 1등급자가 28.7%로 전년 수능(36.5%) 보다 어렵게 출제됐다.

표준점수 최고점을 기준으로 사회탐구 영역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 과목은 법과정치(76점), 가장 쉽게 출제된 과목은 세계지리(66점)이었고, 과학탐구 영역에서 지구과학1(77점)이 가장 어렵게, 물리1(66점)이 가장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 과목은 아랍어(84점), 가장 쉬운 과목은 러시아어(63점)였다.

평가원 모의평가는 매년 수능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수험생이 확인해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시험으로 두 차례 모평 모두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올해 수능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9월 모평에 응시한 수험생은 총 45만5949명으로 재학생은 37만7496명이었고, 졸업생은 7만8453명이었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일 수험생들에게 통지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주택 가진 '금수저' 미성년자 2만명 넘어

5주택 이상 소유자는 100명 이상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가 2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6%는 다주택자였고, 5주택 이상 소유자도 100명을 넘었다.

30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만1991명이다. 이 중 1242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2주택 소유자는 1001명, 3주택 소유자는 99명, 4주택 37명, 5주택 이상도 1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7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도 3579명에 달했다. 이어 경남 1675명, 경북 1543명, 전남 1330명, 부산 1278명, 충남 1070명,

인천 1003명으로 산출됐다.

다주택 보유자 중 서울 291명, 경기 301명, 인천 51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643명이다. 이들은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의 51.8%를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는 1185명이었다. 서울 거주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33.1%에 해당한다. 이 중 1071명이 1주택자다. 2주택은 72명, 3주택 6명, 4주택 3명, 5주택 이상 25명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1%가 무주택 가구로,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부의 축적을 위한 주요 경로가 됐다"며 "부동산 보유에 의한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대성 기자

검찰 개혁위 출범… 조국표 '개혁안 주목'

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방안 마련"
변호사 등 현직 법조인, 언론인 포함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두 번째 닷을 올렸다.

검찰개혁을 강조해 온 조 장관이 발표한 위원회에는 시민단체와 학계, 공무원 그리고 변호사와 검사 등 현직 법조인과 언론인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입법 없이도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조국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 활동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뒀다.

조 장관은 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에게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2기 법무검찰개혁위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변호사는 "2주 전 쯤 법무검찰개혁위에 판사 출신 위원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고, 검찰개혁이라는 과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응했다"며 "지붕은 언제라도 기회 될 때 고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인 '형사부·공판부 강화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이훈 "6년간 산하 연구기관 R&D 부정사용액 274억"

〈더불어민주당 의원〉

R&D 목적외 사용, 허위·중복 증빙
환수율 55%, 미환수금 19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 중 연구·개발(R&D)을 주 업무로 하는 3개 기관의 자금 부정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R&D 자금 부정사용 적발은 222건이다. 부정사용 금액은 274억원에 달한다. 부정적발로 환수 받아야 할 금액은 424억원으로, 환수한 금액은 233억원에 불과하다.

191억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다.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을 보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 152억2500만원 ▲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 51억2100만원 ▲산업기술진흥원 60건, 70억6000만원 순이다.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R&D 목적외 사용'이 100건에 1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및 중복증빙' 49건에 11억원, '인건비 유용'은 60건에 26억원, '납품기업과 공모'는 13건에 22억원이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등에 고시한다. 부정사용

으로 적발될 경우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나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내용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222건이 결정돼 424억6100만원을 환수하도록 정했다.

환수한 금액은 올 6월 기준 233억200만원이다. 환수율은 55% 정도다. 미환수금액은 190억원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환수 유형은 '휴·폐업 등의 사유'가 161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 회생' 9억4000만원, '소송 중' 5억6500만원, '법적주식설자' 6억7700만원, '납부 중' 7억7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석대성 기자 bigstar@

대학가 소식

삼육대, 푸드트럭 청년 창업가 키운다

SBA 주관 '캠퍼스 CEO 육성사업'
직접 푸드트럭 운영하는 교육과정

삼육대가 청년 푸드트럭 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교과목을 개설해 화제다.

삼육대(총장 김성익)가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과 손잡고 '실전외식창업(16주·3학점)' 교과목을 개설해 운영한다. 푸드테크 분야의 미래 CEO를 양성하기 위한 실전형 창업교육 과정이다.

'실전외식창업'은 SBA가 주관하는 '캠퍼스 CEO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됐다. 서울 주요 대학에 캠퍼스 CEO 과정(정규 학점과정)을 개설하여 융합형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사업지원비와 대응자금 총 1억 5400만 원을 투입해 이번 2학기 와 내년 1학기 ▲실전형비즈니스창업 ▲실전외식창업 ▲크리에이터창업 ▲디자인프로젝트창업 등 4개 교과목을



한성공학경진대회

'FDM 3D 프린터' 대상

한성대학교는 지난 26일~27일 양일 간 교내 낙산관 체육관에서 IT공과대학(학장 최재봉)이 주최하고 공학교육개발센터가 주관하는 '제15회 한성공학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5회째를 맞은 이번 한성공학경진대회에는 담당 교수 지도하에 예비 심사를 통과한 IT공과대학 학생 144명 39팀이 출전해 총 33점의 작품과 논문 6편을 출품했고,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 출품된 작품을 기준으로 대상과 금상, 산학협력단장상 등을, 논문을 기준으로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선정해 상금과 함께 시상했다.

대상은 기계시스템공학과 4학년 최가애 씨 등 학생 팀의 '대량생산에 적합한 FDM 3D 프린터'가 차지했다. 학생들은 컨베이어벨트 방식의 베드, 듀얼노즐, IoT 시스템 등의 특성을 지닌 3D 프린터를 직접 설계·제작했다.

/한용수 기자